***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5. 4. 16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LS-VINA 내부 시설 모습** |
| **문의** | **주호찬 차장 (010-8553-7904 ,** [**hjoo3@lscns.com**](mailto:hjoo3@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에코에너지, 필리핀 태양광발전단지에 케이블 공급**  **■ 풍력 이어 태양광 연속 수주, 동남아 인프라 포트폴리오 확장**  **■ 신재생 전력망 솔루션 확대…동남아 시장 공략 가속**  **■ 베트남 정부와 희토류 공급망 협력, 친환경 포트폴리오 확대**  LS에코에너지(대표 이상호)는 베트남 생산법인 LS-VINA가 필리핀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에 전력 케이블 공급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필리핀 주요 발전사들이 루손섬 서부 잠발레스주에 공동 추진 중인 346MW급 태양광 발전단지다. 앞선 풍력 수주에 이은 연속 성과로, LS에코에너지가 동남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루손섬은 수도 마닐라를 포함한 필리핀 전력 수요의 중심지이자,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이 집중 진출하는 전략적 거점이다. 특히 수빅만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출입 항만권’이 형성된 지역으로, 향후 재생에너지 자원의 유통과 전력망 연결의 핵심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필리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인 ‘Build Better More(BBM)’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국가 전력 인프라의 고도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이번 공급은 동남아 친환경 전력 시장에서 LS에코에너지가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라며, “LS-VINA를 거점으로 삼아 동남아 전역에서 신재생 인프라 구축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S에코에너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현지 조달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해저 케이블과 신재생 전력망 솔루션 등 친환경 포트폴리오의 글로벌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

